

#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이 경 애 (전북대)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가람 전집 자료 정리의 방향과<br>편집체제 |
| II. 본론                    | 3. 가람학 정립의 의의와 방향           |
| 1. 가람 전집의 총량과 서지<br>자료 정리 | III. 결론                     |

## 국문초록

본 연구 주제는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이다. 전집은 가람 이병기(1892~1968)가 생전에 남긴 저작물 자료들, 곧 그가 남긴 모든 단행본 저술 및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한 모든 자료들을 조사 정리하여 먼저 가람이 남긴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출판하는 작업이다.

가람 전집에 실릴 단행본 저술 자료는 시조집 2권, 시조론 1권, 국문학사 1권, 국문학개론 1권, 주해서 8권, 번역 및 선집 6권, 교과서 11권, 서지목록 2권, 어린이 역사서 1권, 미발표 육필 일기(노트 49권)와 고어집 노트 1권 총 35종이다. 여기에 118종의 신문과 잡지 및 학술지에 실린 850여 편의 저술과 교가 47편을 합하면 총 자료 수는 930여 편을 헤아린다. 이 방대하고 다양한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1013000)

자료들을 전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전집 간행과 본 연구의 성과는 가람 저술의 전모를 파악하여 가람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람학’으로 정립할 만한 풍부한 학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람학은 문헌-서지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구비문학·민속학, 교육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21세기 독자적인 한국학과 문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확보하고 국어국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적 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가람 학문에 대한 대중화로 무궁한 지식과 상상력이 겸비된 문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다.

주제어: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가람학, 가람일기, 국문학전사, 국문학개론, 가람시조집, 가람문선, 주해서, 현대시조삼인집, 문헌-서지학자, 시조시인, 수필가, 국학자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해 그가 남긴 자료들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정본을 확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가람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행될 전집을 전제로 가람학의 1차 토대를 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가람 이병기 작고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1909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저술 자료들을 수록하는 가람 전집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정리 및 구체적인 편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람은 국학 분야의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가람은 현대시조의 개척자이자 문학사가였고 민족어운동의 선구자인 동시에 고전의 발굴과 해제를 선도한 고전연구자였다. 한국문학사에서 배제된 가람학의 정체성을 그대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집 발간은 문학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람 자체에 집중해야 하며 일방적 ‘우상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람 전집 발간은 가람 연구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한국문학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작업이다.

백년 이내 근·현대 가람 관련 1차 자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1차 자료들은 갈수록 수집하기 어렵고 보존상태도 불량하며, 또한 당대의 열악한 인쇄·출판 환경으로 인하여 출판·인쇄상의 수많은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들을 수록하여 온전한 전집으로 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문적 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그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료들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집 발간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가람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작업으로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간행될 전집을 전제로 고찰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가람학의 1차 토대를 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 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가람 이병기(1891~1968)가 생전에 남긴 저작물 자료들, 곧 그가 남긴 모든 단행본 저술 및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한 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의 사회적 범위는 그가 살며 족적을 남긴 경향 각지를 대상 범위로 하되, 특히 그가 오랜 동안 몸담아 산 서울 및 전라북도 지역의 모든 관련 자료들을 조사 정리하였다.

우선 가람이 남긴 모든 자료들은 원본대로 입력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입력 자료들의 총량 및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점검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력 정리된 자료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분류하고, 입력된 원본에 대한 기본

오류들의 수정 문제를 다루었으며, 편집 및 출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표기법, 맞춤법, 가독성, 편집 체제, 색인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간행될 전집을 전제로 가람학의 1차 토대를 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관점은 우선 가람 전집 자료의 정리와 관련된 원전비평적인 문제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연구방법은 ‘문헌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문자언어로 된 전집 자료들의 원전 확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언어학적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전집의 대상 자료들은 그 원전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교문학적 연구방법’도 경우에 따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들이 여러 단어·문장·문단·글·저술 등등, 매우 다양한 레벨의 언어적 구조물을 다루기 때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구조주의적 연구방법’도 경우에 따라 활용하였다.

### 3. 선행연구와 전집 간행 경위

가람 생전에도 전집을 편찬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많은 자료의 수집에도 불구하고 전집이 되지 못하고 선집의 형태로 바뀌어 『가람문선』이 출간되었다.<sup>1)</sup> 이후 가람 연구의 시조 편중 연구와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거듭되었으나 자료 수집에 따른 연구의 한계와 전집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0년대에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집 발간의 필요성과 분위기도 높게 조성되었다.

그것은 가람의 고향인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11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에서 가람 전집 간행의 당위성과 방안이 제시되었고<sup>2)</sup> 이듬해 학술대회에서는 가람학 정립의 초석으로, 가람 이병기 문학관의 핵심

1) 이병기, 「『가람文選』이 나오기까지」,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2) 오하근, 「가람전집 발행을 제고함」, 『가람 이병기 탄생 120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추진위원회, 2011, 104면.

콘텐츠이며, 익산 지역 문화콘텐츠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전집 간행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였다.<sup>3)</sup>

한편 서울대에서는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를 새롭게 조명하는 논의에서 가람의 저작물을 총괄하는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거의 전체를 두루 포괄한 자료 조사가 있었고<sup>4)</sup>, 전체 저작물 목록 자료의 규모와 분류 외에도 서울대 도서관 가람문고 소장 도서 목록 및 일사, 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과 대비해서 전체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요한 작업임을 밝히기도 하였다.<sup>5)</sup>

이상의 학술 대회와 연구 발표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가람 전집을 간행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촉구와 성원에 힘입어 2014년 9월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가람 전집 간행 사업이 시작되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청, 익산시청, 전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발간될 예정이다.<sup>6)</sup> 더불어 익산시의 가람 문학관 건립도 진행되고 완공될 예정이다.<sup>7)</sup>

한편 이민희는 가람 전집을 위한 기초 연구로 가람 저작물에 대한 문헌자

---

3) 하정일·박태건, 「가람 전집 발간의 의의와 방안」, 『가람 李秉岐(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주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제 제전위원회', 주최: 원광대학교, 2012. 9. 7).

4) 임미진, 「가람 이병기 서지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 12.

5)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12.)

6) 필자는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 총무이사로서 실무 책임을 맡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전북대 국문과, 회장 김익두)를 중심으로 수년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0월을 최종 사업 종료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람 이병기 전집』 분량은 신국판 450쪽 분량으로 약 25권으로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는 가람이 9·28 수복 이후 낙향하여 전시연합대학 때부터 재직하여 초대 문리과 대학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1956. 8.)하기까지 강의를 하였던 곳이다. 결국 전집 간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가람의 고향과 지역사회와 그가 강의에 몸담았던 대학을 연구로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7) 가람 이병기 문학관이 2017년 9월 그의 생가인 여산에 건립될 예정이다.

료를 정하여 가람 저작물의 성격과 관심사를 큰 틀에서 개관하고 연대별로 정리한 목록을 발표하였다.<sup>8)</sup> 가람이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40여 년 간 지면을 통해 발표한 저작물을 조사함으로써, 가람저작물에 대한 총량과 규모는 거의 밝혔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전집 발간은 이론이나 목록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시간과 경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집 발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좀더 실증적인 조사와 세밀한 고증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축적된 선행연구와 전집 자료의 목록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물로 발간되기 위해서는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앞선 학술대회와 발표회 등의 논의와 자료 정리, 목록화, 편집 체제 연구 등은 본 가람 전집 간행 작업과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연구자들이 전집 간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힌다.

## II. 본론

### 1. 가람 전집의 총량과 서지 자료 정리

#### 1) 선택과 배제

『가람문선』(이병기, 신구문화사, 1966)은 신구문화사에서 전집으로 출간하고자 기획했던 것인데 출판사 사정이 여의지 않자 수집한 7천매 원고를 절반 정도의 선집으로 축소하여 한 권으로 출판한 것이었다. 『가람문선』은 『가

---

8) 이민희, 「동향 :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저작물에 관한 기초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제58권, 2015.

9) 이민희 교수의 가람 전집에 대한 지도 조언과 전체 저작물에 대한 조사 목록은 본 전집 작업의 기초 자료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고, 필자도 위 자료조사와 목록 작성에 미미하나 일부 조력하였음을 밝힌다.

람시조집』(이병기, 문장사, 1939)의 시조 72편을 비롯하여 신문·잡지에 발표된 것들을 합한 165편이 실렸으며, 일기 406편, 수필기행 15편, 시조론 6편, 고전연구 6편, 잡고 15편과 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 상 1/4(132/499)이 시조와 시조론이어서 『가람문선』에서 가람의 문학과 학문의 비중은 시조 관련 분야가 매우 크다. 『가람문선』의 구성은 창작시조가 165/308편, 수필 및 기행문 15/80편, 문학 관련 각종 평론이 21/296편, 그 중 시조론은 6/21이라면 시조에 편중된 선택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가람문선』은 가람의 저술에 대한 최선의 종합이었고, 『가람시조집』, 『국문학전사』, 『국문학개론』, 『가람일기』와 함께 이 5권이 그동안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람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중 『가람문선』과 『가람시조집』의 선택에 의한 타 자료의 배제는 가람 연구가 시조와 시조론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져오고 가람의 학문을 다양하게 탐구하는 연구를 제한적이며 한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람 연구의 대부분이 시조나 시조론 연구에 치우쳐 있고 시조 연구도 『가람문선』의 시조만을 주로 연구하게 된 연유가 기초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심층적 연구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거나 미시적 연구에 머물러 있었던 선행 연구가 자료의 선택과 배제에서 오는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것이다.

## 2) 가람 전집 수록 자료의 총량과 규모

### (1) 가람 전집의 단행본 수록 자료 규모와 특성

가람 전집에 실릴 자료 단행본 저술 자료는 시조집 2권, 시조론 1권, 국문

10) 당시 편집위원은 신동문, 최승범, 박계삼, 고은이 기초 편집을 하고 수집 원고의 편찬위원으로 이희승, 정인승, 김상기, 백철, 신석정, 정병욱, 이태극, 강한영, 신동문, 최승범, 박계삼, 고은 등이 참여했다 함. 이들 편집위원들은 시인이 많다.

학사 1권, 국문학개론 1권, 주해서 8권, 번역 1권, 선집 5권, 교과서 11권, 서지목록 2권, 어린이 역사서 1권이 있다. 그리고 그의 미발표 육필 일기(노트 49권)와 고어 육필 노트 1권이 총 35종이다. 이들을 단행본 저술 자료 목록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람 전집의 단행본 수록 자료

종류	순	저서명	발표연도	저자	출판사
시조집	1	가람시조집	1939	이병기	문장사
	2	현대시조삼인집	(1951)	이병기·조운·조남령	미발표
시조론	3	시조의 개설과 창작	1957	이병기	현대출판사
		시조와 창작론 제1권 (시조의개설과창작 중복)	1957	이병기	발행자불명(등사판)
문학사	4	국문학전사	1957	이병기·백철 공저	신구문화사
문학개론	5	국문학개론	1961	이병기	일지사
		국문학개설 (국문학개론 중복)	1950	이병기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등사판)
일기	6	가람일기(미발표본)		이병기	육필노트
교주 및 주해	7	인현왕후전(『문장』연재)	1946	이병기 주해	박문출판사
	8	한중록(『문장』연재)	1947	이병기 주해	백양당
	9	의유당일기	1948	김의유당자 이병기 주	백양당
	10	요로원야화기 외 11편	1948	이병기 선해	을유문화사
	11	가루지기타령	1949	산재효선 이병기 교주	국제문화관
	12	어우야담	1949	유몽인자 이병기 교주	국제문화관
	13	계축일기	1956	이병기 주	단국대학교 국어문학연구원
	14	한등록	1961	이병기·김동욱 공주	민중서관
번역 및 선집	15	역대시조선	1940	이병기 교주	박문서관
	16	현대시조선총	1958	이병기·이태극 공편	새글사
	17	명시조감상	1958	이병기·신석정 공저	박영사
	18	지나명시선	1944	이병기·박종화 공역	한성도서주식회사
	19	근조내간선	1948	이병기 편주	국제문화관

	20	조선역대어류문집	1950	이병기·이병도 공편	을유문화사
교과서	21	문학독본 상	1948	이병기	상문당
	22	중등국어 1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3	중등국어 2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4	중등국어 3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5	중등국어 4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6	중등국어 5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7	중등국어 6	1949	이병기	금룡도서
	28	표준옛글	1955	이병기·정인승 공저	신구문화사
	29	표준문예독본	1955	이병기·장인승·백철 공편	신구문화사
	30	표준 고등글본	1956	이병기·장인승·백철 공편	신구문화사
	31	표준국문학사	1956	이병기·백철 공저	신구문화사
서지	32	서목:가람이병기소장본	1963	이병기	발행지불명(등사판)
	33	일사·가람문고고서저자 목록(가람문고만 발췌수록)	1966	서울대부속도서관	등사판
역사	34	어린이역사 (동아일보 연재)	1946	이병기	정음사
기타	35	고어집		이병기	육필노트

『가람시조집』(1939)은 가람이 최초로 출판된 시조집으로, 72편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가람이 펴낸 시조집은 『가람시조집』 1권뿐이었는데 최근 유 실된<sup>11)</sup> 줄 알았던 이병기, 조운, 조남령의 『현대시조삼인집(現代時調三人時調集)』이 다행히도 발견되어 67년 만에 이를 전집에 수록하여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sup>12)</sup> 이 삼인시조집은 가람의 시조뿐만 아니라 월북한 조운과 조남령 연구의 자료로 시조문학사상으로도 큰 수확이다.<sup>13)</sup>

11) 1951년 10월 15일 가람은 하루 종일 서적을 정리하면서 “조운, 남령, 가람인 『삼인시조집』 원고가 없다.”고 애타게 찾았으나 그 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가람의 2015년 작고한 가람의 셋째 며느님 윤옥병 여사의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되었다.

12) 이병기 저,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651면.

13) 발견된 『現代時調三人時調集』이라는 표제의 삼인시조집은 3인의 미발표 시조 원고로 인쇄에 넘기기 전 가람이 교정을 마친 원고이다. 가람 시조 36편, 조운

『시조와 창작론』은 전북대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재로 1957년보다 훨씬 이전이며, 『시조의 개설과 창작』(현대출판사, 1957)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시조의 개설과 창작』은 가람의 시조론을 최종 종합한 시조론서이며, 『국문학전사』, 『국문학개론』도 가람의 국문학 저술로 가람의 국문학을 최종 종합한 주요 대표 저술이다. 『국문학개설』(등사판)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재로 사용한 자료이며 출판 연대는 1951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sup>14)</sup> 이 책은 뒷부분을 보충 완성하여 『국문학개론』(일지사, 1961.)으로 출판하였다.

『국문학전사』는 고전문학사와 국한문학사는 가람이, 신문학사는 백철이 공저하였다. 논의에 따라 가람 저술이 아닌 경우 전집에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가람은 『국문학전사』 「자서」에서 저술 의도가 국문학의 ‘전사(全史)’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되 문예양식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기술한다는 체계의 성격이 드러나 있으며,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고전문학의 전통적 계승 속에서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창조되었다는 전통단절론의 편견을 극복한 의의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집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람일기』(신구문화사, 1976)는 원래 일기를 축소<sup>15)</sup>하여 펴냈으나 이번 전집에는 가람일기 전체 51권(2권 유실 49권) 육필 노트를 유족의 협조로 확보하여 미발표 일기를 전집에 그대로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1909년부터 1966년까지 58년간 기록한 그의 일기는 행초서로 기록한 한문일기 3권, 국문일기 11권, 국한문 혼용 34권의 육필 노트 기록이다. 이 일기로 가람의 인생

---

시조 29편, 조남령 시조 15편 총 80편이 실려 있다. 그 중 새롭게 발견된 미발표 시조는 가람 16편, 조운 7편, 조남령 9편이다. 이 시조집의 발견으로 세 시조시인들의 교분과 그들의 시조를 더욱 풍부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운과 조남령의 월북 직전 미발표 작품이 전해지게 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

14) 이병기,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634-639면.

“개설을 초하다(1950. 12. 28)”, “『국문학개설』 원고를 쓰다. 전북 전시연합대학의 국문학개설학 개강.”(1951. 5. 10.), “중일 집에서 『국문학개설』 초고를 정리.(1951. 6. 9.)” 등으로 볼 때 1951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15) 앞의 책, 6면. 원래 200자 원고지 5천여 매의 분량인데 3천5백매만 수록함.

행로와 삶의 여정과 굴곡<sup>16)</sup>을 온전하고 세세하게 살필 수 있다. 가람의 육필을 통해 국어 표기상의 변화를 살필 수 있고, 가람의 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근 현대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연구의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가람이 펴낸 교주 및 주해서는 8권으로 그 중 『한중록』, 『인형왕후전』, 『요로원야화기』는 『문장』에 소개하고 연재한 주해 작품을 그대로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또한 『의유당일기』, 『근조내간선』, 『계축일기』 등을 주해하여 편찬하고 『조선역대여류문집』<sup>17)</sup>은 15편의 여류 문인들의 필사본 작품과 해설을 실었다. 가람은 특히 여류문학과 내간체 등 한글로 쓴 우리글의 아름다움과 문체를 보여주는 고전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이 작품들을 주로 주해하였다. 이들은 고전 부흥과 대중화를 선도했던 가람의 의도와 성과를 잘 드러내는 저술이다.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항상 화제가 풍부했던 가람은 고담·기담·소화 등 관심이 많아 이를 수집 기록하였는데<sup>18)</sup>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책들이 『어우야담』, 『요로원야화기』이다. 한편 가람은 일찍부터 신오위장본 판소리 사설 자료를 필사하고 연구하였다. 그가 필사한 자료를 주해한 책이 『가루지기타령』(국제문화관, 1949. 5.)이다.<sup>19)</sup> 판소리를 ‘극가’라 하여 문학적으로

---

16) 방민호, 「해방 공간과 6.25전쟁 속의 가람 이병기」, 『서정시학』 25권 4집, 2015.  
17) 『조선역대여류문집』은 이민천 민병도 공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가람과 이병도 공저이다. 15편의 여류 문집의 필사본 자료와 해설이 들어있다. 이 책은 전집에 필사본은 제외하고 해설만 신기로 한다.  
18) 최승범, 『스승가람이병기』, 범우사, 2001, 21-23면.  
가람은 항상 풍부한 화제로 좌중을 웃게 하였으며, 강의 시간에도 동서고금의 해학적인 고담 기담 소화로 웃음을 곁들이는 화제의 독무대로 만들었고 심지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홍원 감옥에 수감되어 혹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재미있고 용기를 잃지 않는 화제로 동지의 고초를 위로해주었다 한다.  
19) 이경애, 「가람 이병기의 판소리 문학 연구」, 『판소리연구』 제40권, 2015. 10, 105면. 가람의 신오위장본 판소리 자료 수집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집념의 작업이었으며 가람은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 마당의 자료를 일일이 필사하여 확보했다. 판소리 관련으로 「토별가와 신오위장」(『문장』 제2권 5호, 1940.) 「극가와 소설」(『전북대학교보』, 1955. 3. 24.)을 발표했고, 『국문학전사』와 『국문학개론』에 대표 서민문학으로 종합 정리하여 서술했으며 가람의 판소리 연구는 이후 후학들의

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이가 가람이다.

가람이 공저 수록에 대한 논란<sup>20)</sup>은 『국문학전사』 외에도 『지나명시선』(이병기·박종화 공역), 『한등록(이병기·김동욱 공주』 등이 있다. 『한등록』은 앞서 출판한 『한중록』(백양당, 1947)과 중복되기도 하고 김동욱이 주도하에 편찬하여 전집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가람이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가람본’, ‘일사본’, ‘나손본’ 한중록 셋을 비교한 원문을 수록하였으며, 가람의 한중록 주해를 참고하였고, 그와 이름을 공저로 한 것은 영향력이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비교자료로 전집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에 따라 수록하기로 하였다. 『명시조감상』, 『지나명시선』도 공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가람의 영향이나 저작물의 특성상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 원래 저작대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일찍부터 시조를 연구한 가람은 역대 시조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훌륭한 고시조와 현대시조들을 선집으로 펴냈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3권의 시조선집을 편찬했다. 『역대시조선』(이병기 교주, 박문서관, 1940)은 고시조 307수를 엄선하여 이를 주석하여 편찬했다. 『명시조감상』(이병기·신석정 공저, 박영사, 1958)은 44편의 고시조는 가람이 주석하고 감상을 붙이고, 41편의 현대시조 부분은 신석정이 썼으며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기준을 최남선의 시조로 하였다. 『현대시조선총』(이병기·이태극 공편, 새글사, 1958)은 1900년 이후에 등장한 명실상부한 현대시인 중에서 65명을 택하여 456편, 953수의 시조를 엮은 선집이다. 현대시조로는 처음 되는 앤솔러지로 시조를 살리고 싶고, 살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가람의 시조 혁신에 대한 지론과 의지를 드러낸 저술이다.

가람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평생 한글운동과 국어교육에 헌신하였다.<sup>21)</sup>

---

엄청난 연구를 이끌어냈다.

20) 오하근, 앞의 책, 104면.

21) 한성사범을 졸업한 가람은 1913년부터 남양(南陽)·진주 제2·여산(礪山) 등의 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시작하여 서울에서 1922년부터 동광·휘문고보에서 ‘습자’와 ‘조선어 급 헌문’ 과목을 가르쳤고, 일제 말 조선어가 폐지되자 휘문고에서

광복 후 국어 교재 편찬과 국어교사 양성이 시급함을 강하게 주장한 가람은 광복 직후 군정청 편수관을 지냈으며 중등용 국어 교과서의 편수주임을 맡아 초·중등 국어교과서의 편찬에 관여하였다.<sup>22)</sup> 가람이 편찬한 국어교재는 『중등국어 1~6』를 비롯하여 『문학독본』, 『표준옛글』(2회 개편), 『표준문예독본』, 『표준 고등글본』, 『표준국문학사』 등이 등 11권이 있다. 이들 교과서 자료의 내용은 가람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그의 문학 작품 감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의하여 고전·현대 문학의 모범이 될 만한 작품들로 선정하여 펴냈으며 이후 교과서 작품 선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어문학명저해제」(『문장』 2권 8호, 1940. 8.)와 「한국명저해제」(『사조』 1권1호-1권7호, 1958. 6-12.) 등 해제를 발표한 가람은 자신이 수집하여 소장한 고서를 기증하기 전 귀중본 희귀본 등으로 분류하여 『서목』<sup>23)</sup>을 작성하였다. 이후 가람이 고서 4천 2백여 권이 서울대에 기증한 후 기증한 고서 목록을 서울대 부속도서관에서는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으로 발행하였다. 가람이 수집하고 필사한 고서자료는 가람 연구<sup>24)</sup>뿐만 아니라 타 연구자의 많은 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국학 연구의 귀중한 보물 창고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가람 소장 목록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전집 수록의 의미가 있다. 이에 전집에서는 그 중 가람문고만 발췌하여 전집에 수록한다.

고어(古語)의 한자 훈과 풀이를 육필로 쓴 노트를 『고어집』<sup>25)</sup>이라 하였다. 이는 불규칙하고 정리를 할 수 없이 쓴 메모형식의 노트여서 원본 사진으로

---

물러나고 이후 대학에서 국문학 강의를 함.

22) 정영훈, 「해방기 국어교과서 편찬과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주관 :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제 제전위원회’, 주최: 원광대학교, 2014. 9. 19.) 95-99면.

23) 가람이 평생 수집하여 소장한 고서의 목록을 귀중본, 희귀본 등으로 분류하여 적은 등사판 자료이다. 이후 가람은 수집한 전 도서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여 ‘가람문고’로 보관되어 있다.

24) 이미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40, 2014, 218면.

25) 가람이 노트에 펜으로 필사한 것으로 『분류두공부시언해』, 『석보상적월인천강지곡』, 『능엄경언해』, 『선종영가집』, 『용비어천가』, 『어록』, 『백련초해』, 『내훈』, 등 서적에서 한자 훈과 고어 풀이를 백백하게 적은 자료이다.

수록한다. 주시경의 제자들과 가람은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우리말 사전 편찬을 소망했으며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상의 자료 목록을 편의상 단행본 저술이라 하였지만 이것은 신문 잡지에 들어 있지 않은 단독저술 자료들을 일컫는 것이다.

가람 전집에 수록할 저술은 1차 원본을 수집하고 이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가람문선』은 해체하여 수록하고 『가람日記』(신구문화사, 1976)는 미발표본 가람일기를 새로 수록한다. 『어린이 역사』는 『동아일보』의 것으로 수록하고, 『조선역대여류문집』은 해설 부분만 수록하며, 『일사·가람문고고서저자목록』은 가람문고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가람시조선』(정음사, 1973/삼중당, 1975)은 가람 전집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가람 저서로 알고 있는 『시조전집』(신명균편, 이병기 교열, 중앙인서관, 1936)은 가람 저서에서 제외한다. 『시조전집』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 1936. 7. 6.(월) 맑다. 신명균군(申明均君)이 오다.  
시조전집(時調全集)을 발간(發刊)하겠다고  
그 명칭(名稱)부터 불가(不可)라 하였다.
- 1936. 8. 30.(일) 비. ... (중략) ...  
이중건(李重乾), 신명균(申明均)을 찾아보고, 시조전집(時調全集)의 나의  
이름은 빼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시조전집』 발간은 명칭을 쓰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하였다. 그 이유를 수천 수가 넘는 시조를 수록하는 전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데서 엿볼 수 있다.<sup>27)</sup> 신명균은 가람의 지명도나 대우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시조전집(時調全集)』은 신명균의 『조선문학전집』 제1권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이 책은 신명균의 저술로 보아

26) 이병기,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467-468면.

27) 이병기 교주, 『역대시조선』, 박문출판사, 박문서관, 1940, 3면.

“이런 형태로 된 것을 모두 시조라 하여 헤어본다면 이래 팔구백년에 그 단형, 장형을 합하여 수천 수가 넘을 것”이라 하였다.

야하며 가람전집에는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sup>28)</sup>

## (2) 가람 전집 신문 잡지 학술지 수록 자료의 총량과 특성

가람의 독서와 글쓰기는 일상 습관이였다. 가람은 3·1 운동 이후 동아 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잡지가 출간된 것을 매우 반겼으며, 이들 신문 잡지에 의한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었다.<sup>29)</sup> 따라서 그는 쉬운 한글로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대중화를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에 많은 원고를 게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및 학술지에 발표된 가람 저술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89종의 잡지와 학술지에 321편(372회), 29종의 신문에 333편(409회) 총 118종 지면에 654편(779회)을 게재하였다. 한편 『가람문선』에 수록한 아직 출전을 밝히지 못한 시조가 67편이다. 이것을 합하면 신문 잡지 전체 양은 721편(846회)이다.<sup>30)</sup>

편수와 횟수를 구분하는 것은 한회에 여러 수의 시조나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재물의 경우 여러 회에 걸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1925년 7월 19일 발표한 「봉천행(구장)」(청천강/암록강/또/암록강 건너서/봉황성/심양)은 작품 수는 6편이다.<sup>31)</sup> 단행본 저술과 비교하여

28) 『시조전집(時調全集)』은 고시조 1648수를 설명이나 주석 없이 나열하여 수록하고 있다. 가람은 본인의 이름을 저자로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신명균은 책의 머리말 “본집(本集)을 편찬(編纂)함에 임(臨)하여는 외우(畏友) 가람 이병기씨(李秉岐氏)의 간독(懇篤)한 지도(指導)와 홍구(洪九) 씨(氏)의 조력(助力)이 만hat음을 부사(附謝)한다.”라고 했으며, 저자 이름에 ‘신명균 편·이병기 교열’이라고 붙여 출판했다. 가람과 신명균은 둘 다 한성사범 출신으로 함께 주시경선생의 조선어강습을 받았고,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가람의 자기(知己) 중에 가장 가까웠던 이가 권덕규와 신명균이었다. 신명균은 음독 자진하였으며 이를 일기(1940년 11월 21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이병기, 앞의 책, 108-109면.

30) 이렇게 본다면 가람 저술에 대한 총량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보면 신문 잡지 1편의 양은 적다고 하지만 『문장』에 연재한 『한중록』(12회, 1939. 1.~1940. 1.) 『인현왕후전』(6회, 1940. 2~1940. 7.)을 『동아일보』에 연재(83회)한 것을 『어린이 역사』로 펴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들을 발표 횟수에 따라 한 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목으로 한 편으로 볼 것인가? 시조의 경우는 한 회에 여러 편을 발표한 경우 작품 제목에 따라 한 편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신문 잡지에 발표한 글은 같은 글을 중복하여 발표한 것도 있으며 일부분만을 따로 중복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한 가람의 자료를 수를 총량을 정확하게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가람의 자료는 계속 발견되고 있어 언제까지 완벽하게 조사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그 총량의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들 신문·잡지·학술지 자료의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가람 전집의 신문·잡지·학술지 자료(가나다순)

순	잡지명	편수/횟수	순	잡지명	편수/횟수	순	신문명	편수/횟수
1	가정지우	1/1	46	신세기	2/2	1	가정신문	1/1
2	가톨릭청년	6/11	47	신소설	1/1	2	경향신문	1/2
3	개벽	1/1	48	신시대	1/1	3	국도신문	2/2
4	공제	1/1	49	신인문학	1/1	4	국학대학보	1/1
5	국어국문	2/3	50	신조	2/2	5	대학신문	1/1
6	국어국문학	1/1	51	신천지	3/3	6	독립신보	1/1
7	국어문학	6/6	52	야담	5/5	7	동광신문	1/1
8	금융조합	1/1	53	여성	3/8	8	동아일보	179/230
9	농민생활	1/1	54	예술원보	1/1	9	매일신보	1/1
10	농업조선	2/15	55	원광문화	1/1	10	민중일보	2/2
11	대동아	1/1	56	일석회갑논문집	1/1	11	삼남일보	9/10
12	대조	1/1	57	자유문학	4/4	12	서울신문	5/5
13	대중공론	2/4	58	제일선	1/1	13	시대일보	15/12
14	동광	3/3	59	조광	7/7	14	신민일보	1/1

31) 이민희, 「동향 :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저작물에 관한 기초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8권, 2015, 405면 참조.

15	동방평론	1/1	60	조선강단	1/2	15	예술신문	1/1
16	동방학지	1/2	61	조선교육	1/1	16	자유신문	3/3
17	문예	2/2	62	조선문단	10/10	17	전북대학교보	24/24
18	문예공론	1/1	63	조선시단	2/1	18	전북일보	6/7
19	문장	26/41	64	조선어	1/1	19	제3특보	1/1
20	문학	1/1	65	중앙	7/7	20	조선사상통신	2/2
21	문학사상	4/1	66	중학생	1/1	21	조선일보	63/78
22	문화	1/1	67	지리산	1/1	22	조선중앙일보	4/4
23	민성	3/3	68	한국시인전집	2/4	23	조선통신	2/10
24	박문	3/3	69	진단학보	2/4	24	중앙일보	1/1
25	반도사회와 낙도만주	7/7	70	청년	7/7	25	중외일보	2/2
26	백민	1/1	71	춘추	6/6	26	대백신문	1/1
27	별건곤	14/14	72	풍문	1/1	27	태양신문	1/2
28	불교	5/5	73	평론	1/1			
29	사상계	1/1	74	학등	5/5	28	학도주보	1/1
30	사조	1/7	75	학생	1/13	29	한국일보	1/1
31	삼천리	15/20	76	학호	1/1		신문 소개	332/ 409
32	삼천리문학	2/2	77	한글(동인지)	6/6			
33	새교육	2/2	78	한글	10/10			
34	새벽	4/2	79	한일	1/1			
35	새시대문학	1/1	80	해방기념시집	1/1			
36	소년조선	1/1	81	향토서울	1/1			
37	시조	1/1	82	혁명	1/1			
38	시조문학	1/1	83	현대	1/1			
39	시조연구	3/1	84	현대문학	16/16			
40	시학	1/2	85	현대평론	2/2			
41	신가정	8/8	86	협동	1/1			
42	신동아	7/10	87	혜성	1/1			
43	신문화	1/1	88	호남철의사	1/1			
44	신민	17/17	89	휘문	8/8			
45	신생	24/26		잡지 소개	321/ 372		총계	654/ 779

「시조란 무엇인가」(『동아일보』, 1926. 11. 24.~12. 13.)는 18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농업조선에 연재(14회 1939. 8.~1940. 2.)한 「습수록」도 분량으로 보면 단행본 못지않게 많다. 『동아일보』에 게재한 원고는 185건으로 가람이

많은 기고를 한 신문이다. 『조선일보』는 61건, 『전북대학교보』도 28편에 이른다. 기간으로나 분량이 가장 긴 연재물은 『동아일보』에 실린 역사인물 전기인 「어린이역사」(83편)이다.

신문이나 잡지는 시기별 또는 신문 잡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람의 국어 문법 연구 자료는 『조선강단』과 『가톨릭 청년』, 『대중공론』에서 볼 수 있고, 조선어학회 활동과 연구는 『한글』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문장』을 통해 고전 부흥과 대중화, 현대시조의 대중화와 시조작가의 배출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변화를 보이며 신문 잡지에 발표된 가람의 글은 그 특성을 달리한다.

『별건곤(別乾坤)』은 취미와 실익을 위주로 한 대중잡지로 새로 지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 당대의 유명 문인들의 시·소설·수필 등을 게재하여 문예지로서의 일면을 보인다. 가람은 여기에 「탈[假面]」, 「봄의 마을사람집」, 「새벽길」, 「말-소」, 「고물(古物)」, 「매화(梅花)」, 「수선화(水仙花)」, 평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반포」, 「정초의 행사와 관습」, 소설 「연재 장편강담, 연산주」를 실었다. 또한 『가톨릭 청년』은 신앙과 문화를 담은 잡지로 가람은 문법 「조선어강화」, 시조 「홍도(紅桃)」, 쟁케비치의 단편 「어둠에 반짝이는 빛」 번역을 실었다.

가람은 시조부흥운동을 전개하였고 고시조 작품과 시조연구를 통해 시조 이론을 명쾌하고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시조 혁신을 주장하고 현대시조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학생』, 『삼천리』 등 다양한 잡지와 신문에 연재를 통해 발표한 시조론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혁신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

다음 <표 3>은 가람 시조론 저술 자료목록이다.

<표 3> 가람 시조론 저술 자료

순	제목	발표 일자	발표지
1	시조에 대하여	1926.	회문 4호
2	시조란 무엇인고(연재 전18회)	1926.11.24. ~ 12.13.	동아일보

3	시조와 한시	1927.1.5.	조선일보
4	시조는 부흥할 것이냐	1927.3.1.	신민
5	율격과 시조(연재 전4회)	1928.11.28.~12.1.	동아일보
6	시조와 한시	1929.1.10.	조선어
7	시조원류론(연재 전3회)	1929.3.~5.	신생
8	시조의 현재와 장래(연재 전3회)	1929.4.~6.	신생
9	시조는 창이나 작이나	1930.1.	신민
10	시조와 그 연구(연재 전9회)	1930.1.~1930.10.	학생
11	시조는 혁신하자(연재 전11회)	1932.1.23.~2.4.	동아일보
12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1934.11.28.	진단학보
13	시조의 기원과 그 형태(연재 전5회)	1935.1.1.~1.13.	조선일보
14	시조 감상과 작법(연재 전6회)	1935.12.1.~1937.1.1.	삼천리
15	한시절귀와 시조와의 관계	1939.1.1.	조선일보
16	시와 시조	1939.7.	시학
17	시조의 형태(연재 전5회)	1940.3.5.~3.10	동아일보
18	시조론	1947.8.	조선교육
19	고시조의 감상과 비판	1949.8.1	문예
20	민요와 시조(연재 전4회)	1949.12.9.~12..	조선일보
21	역대시조의 작품	1953.1.	시조연구
22	시의 창작에 대한 작가로서의 교양 (『시조창작론』에 중북)	1953.12.	신조
23	시조의 혁신	1956.	학도주보
24	시조창작론(『시조의개설과 창작』에 중북)	1957.	일석회잡논문집
25	시조의 개설과 창작	1957.	현대출판사
26	시조창작과 창	1957.	현대
27	시조와 창작론(『시조의 개설과 창작』에 중북)	1957.	발행자불명 (동서관)
28	시조창작과 그 기술(『시조창작론』, 『시조의 개설과 창작』에 중북)	1959.4.	자유문학
29	고급시조의 형태 (동아일보 「시조의 형태」와 중북)	1943. 1. 1960. 3.	반도사회와낙토 만주, 자유문학

이 자료를 통해 그의 시조론의 전모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는 신문 잡지 시조론 27편과 단행본 저술 2권을 발표했다. 1920년대 시조론 주요 발표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생』, 『신민』, 『학생』이며, 1930~1940년대 주요 발표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진단학보』 등이다. 가람의 시조나 시조론에 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아직 전체 규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미흡한 편이다.

20년대 30년대 활발한 시조론 발표에 비해 50년 이후 시조론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전 것의 반복과 종합임을 살필 수 있다. 『시조와 창작론』과 「시조창작론」은 『시조의 개설과 창작』에 중복되어 있으며 「시의 창작에 대한 작가로서의 교양」과 「시조창작론」도 서로 중복되는 글이며 최종 종합하여 편찬한 것이 『시조의 개설과 창작』이다. 이와 같은 종합과 정리는 자료를 통해 가람 시조론의 총량과 규모를 헤아릴 수 있으며 시조론의 특징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진단학회 회원이었던 가람은 『진단학보』에 「송강가사의 연구」를 발표했다으며, 학술지 『동방학지』에 게재한 「한국서지의 연구」는 서지학 연구의 선구자의 저서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sup>32)</sup>

가람은 지명도가 높아 순수 문예지가 아닌 『신가정』, 『농업조선』, 『금융조합』, 『협동』, 『여성』 등에 발표한 글들은 일반 기관이나 대중 잡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에 맞는 글도 썼다. 그의 시조, 기행문, 평론들은 발표지의 성격과도 큰 연관성을 지닌다.

### (3) 교가 및 행사가

가람은 시조도 많이 발표했지만, 또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가 작사도 많은 분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들이 1920년에서 50년대에 개교된 학교들이 많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의 교가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졸업생과 동창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결속력 갖게 해준다. 그런 만큼 교가 작곡가와 작사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학교가 많은데 작사가로서 가람은 인기가 많았다. 가람의 일기에는 작사요청을 받아 사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많기도 하다. 가람에게 이렇게 많은 교가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이유

---

32) 이와 관련된 서지 자료로 『서목』(이병기, 발행자불명, 1963), 「조선어문학명저해제」(『문장』 2권 8호, 1940. 8.)와 「한국명저해제(『사조』 1권1호-1권7호, 1958. 6-12.) 등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는 그 시기의 시조시인으로 유명하기도 했거니와 그의 인품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람은 초등학교 교가 5편, 중고등학교 교가 28편, 대학교 교가 6편, 외에 기념가나 행사가 8편 등 47편을 작사하였다.

교가의 가사는 대개의 경우 훌륭한 풍수 경관이나 기상이나 자랑거리를 붙인다. 그런데 가람은 자신의 고향 여산초등학교의 교가에는 “이렇다 할만한 자랑이 없다”는 가사를 붙여 특이하다. 이는 겸손하고 진솔하며 과장이 없는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조사한 가람 이병기 작사 교가 목록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가람 이병기 작사 교가와 행사가

순	구분	학교명	편수
1	초등학교	여산초등학교, 군산중앙초등학교, 동광학교 교가와 운동가, 김계 중앙초	5
2	중학교	부산 경남중, 이리동중, 정읍중, 호남중, 김제 금산중, 삼례중, 부안 삼기중, 인천 박문여중, 경북중, 서울중학체육가, 진천 공립농업중학교, 군산 남중학교, 충남 아산중학교	13
3	고등학교	이리고, 이리공고, 정읍고, 정읍여고, 호남고, 김제 금산고, 삼례공고, 서울경북고, 서울 경기고, 풍문여자고, 평화의 학원, 경기공업학교, 부산상고, 천안제일고 충남 아산고등학교	15
4	대학교	전북대, 서울대, 국민대, 대구사범대(경북사범대), 수원농대, 국민대	6
5	기타	독립청년단가, 호영강습원 노래, 학생의노래, 유관순치녀기념가, 부산 천일고무공업사 공장가, 해방기념가, 마라손환영가, 졸업가	8

#### (4) 전집의 장르 구분

가람이 쓴 기행문은 24편과 수필 67편을 따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시조 295편이며 평론이 172편이다. 평론은 국어학평론, 국문학평론, 시론, 독서평론, 시조평론, 역사평론, 인물평론, 세태평론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번역 15편(번역소설 1편, 한시번역 14편), 소설 1편, 심사평 13편,

전기 2편, 역사 이야기 94편, 서평 7편, 주해 19편, 일본어 저술 3편, 기타 잡문 33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람 전집의 신문 잡지 자료의 장르별 편수(단행본 포함하지 않음)

순	장르	수	순	장르	수
1	기행문	24	9	역사이야기	94
2	번역(소설 한시)	15	10	좌담 토론 설문 인터뷰	9
3	서지해제	2	11	주해	19
4	서평	7	12	평론	172
5	수필	61	13	일본어저술	3
6	시·시조(시조집포함)	295	14	작사	47
7	심사평	13	15	기타 잡문	33
8	전기	2			

가람의 시조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308수인데 『가람시조집』에 59편, 『현대시조삼인집』 36편, 그 외에 중복되지 않은 잡지와 신문의 시조는 228편이며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시조는 『가람문선』의 시조를 그대로 수록한다.

가람의 잡지나 신문의 저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평론이다. 평론은 고전문학, 시조론, 문학, 독서, 역사, 세대, 국어학, 한글 관련 평론 등 다양한 내용들이며 『국어문학』이나 『진단학보』, 『동방평론』 등의 학술적 논문에서부터 어린이를 위한 국어공부와 같이 가벼운 평론, 잡문까지 다양하다. 조선어학회를 창립하고 한글운동에 앞장서 몸으로 실천한 가람은 국어 관련 평론을 다수 썼으며, 그의 문학은 조선어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문학으로, 국어학과 문학 통섭의 대표적인 학문이다.

『동아일보』와 『문장』의 ‘시조고선제’와 ‘추천제’는 많은 시조작가를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가 가람의 심사평이다. 주해는 『문장』의 「한중록」, 「인현왕후전」 외에도 고시조와 「습수록」(『농업조선』, 1939. 9.~1941. 1.)에 연재한 농요 「농가월령가」, 「농부가」, 「산유화가」 등이 있다.

진단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가람은 문학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역사 연구에 심취하였으며 역사 이야기는 가람 저술의 많은 소재가 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재한 ‘어린이역사’(82편)와 ‘사상의 여결찬’(10편)이 있으며 그 외에 「삼국시대의 무협전」, 「신라사의 정화 화랑도」, 「임진왜란을 취재한 국문학」, 「임진왜란과 의병의 쫓기와 그 전국추이의 대개」, 「세종대왕과 한글」, 「세종대왕의 독서와 창작」, 「사상에 나타난 마공의 충용담」, 「을미년의 사적고찰」, 「경복궁중건과 민원」, 「난세에 이 聖雄」, 「박연암전」, 「안중근전」 등은 역사와 전기, 국문학이 함께 쓰여진 내용이다.

이들 잡지나 신문 자료의 장르 구분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고 실제로 단행본 자료와 전집의 수록 순서나 배치는 이들을 혼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2. 가람 전집 자료 정리의 방향과 편집 체제

### 1) 가람 전집 자료 정리의 방향

전집 자료 정리는 가람 연구의 방향성과의 관계 고려 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가람의 생애와 업적의 재구성 및 평가를 위해 자료를 정리할 경우는 생애를 고려한 자료 발표 일자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문학인으로서의 재조명을 위한 경우는 장르별(시조, 수필, 평론, 기행문, 서간문, 일기, 좌담, 교주 및 주해 등)로 정리할 수 있다.
- (3) 학자로서의 학문 세계를 고려할 경우 국어학자, 교육자, 고전문학자, 서지학자, 문학사가로서의 학문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 (4) 작품 발표 매체를 고려할 경우는 저서 단행본(시조집, 교과서, 선집, 주해서) 등과 신문, 잡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람 저술은 양이 많고 분류 기준이 복잡하고 장르 구분이 애매한 것들도 많아 일괄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할 수 없다. 가람 전집의 정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단 매체별로 단행본 저술과 잡지 신문 학술지 등으로 정리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이들을 날짜별 또는 다음 이들을 장르별 구분하여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전집 자료 정리는 일반 독자 내지 연구자와의 소통 및 활용도 측면 고려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작품 원문의 발표(게재) 날짜별로 제시(장르 불문)하여 가람의 관심사, 의식의 변화 등을 탐색할 수 있는 단서 제공한다면 그 소통이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단, 부록으로 여러 준거의 목록 제시하여 ① 작품명 가나다순, ② 장르별(시조, 수필, 평론, 저서, 서간문, 기타 등), ③ 발표 시기순, ④ 발표(게재) 지면별(신문, 잡지, 단행본 등) 여러 기준에 의거한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표기는 작품 원전 표기 그대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한 설명한다.

(3) 원문 제시 방식은 ‘발표날짜, 제목, 본문, 출처’ 또는 ‘제목, 본문, 발표날짜, 출처’의 형태로 제시한다.

가람 전집 간행은 가람학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따라서 가람 전집은 가람의 활동과 학문적 성과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를 다방면의 연구 성과로 확대, 재생산해 내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편집의 극대화로 학제적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종합적 접근과 다양한 색인이 가능한 전집이 되어야 한다.

## 2) 가람 전집의 편집 체제

가람 전집은 가람의 학문과 성과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를 다방면의 연구 성과로 확대, 재생산해 내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편집의 극대화로 학제적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종합적 접근과 다양한 색인이 가능한 전집이 되어야 한다.

(1) 전체 목차 개요는 간행사, 회고사, 가람 관련 사진, 가람 저작물, 생전 지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나 일화, 가람이 주고받은 서간 순서로 수록한다. 부록으로 원전 교정 일람, 발표 날짜순, 장르별, 작품명 가나다 순 등의 작품 일람, 가람 이병기 관련 학위논문이나 논저 목록, 작가연보 등을 제공한다.

(2)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나 가람의 경우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 가람학의 의미를 붙인 해설이나 논문을 수록할 수 있다. 총론과 더불어 가람의 각 학문 즉 시조시인, 교육자, 국어학자, 고전문학연구자, 서지학자 등의 측면에서 본 가람의 위상 및 그 학문적 가치나, 『가람일기』, 『국문학전사』, 『한국명저해제』, 『삼관여록』, 고전문학 작품 주해서 등 주요 저서의 문학사적 위치 및 평가, 또는 한성사범대학 재학 시절, 동광·휘문고보 교사 시절,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등 생애를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다.

### 3) 가람 전집 자료 입력 방향

가람 전집은 1910년부터 1966년까지 기록과 출판된 저술들을 포함한다. 이 중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전 표기의 기록과 인쇄는 현대 맞춤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의 열악한 출판 환경으로 출판 인쇄 상의 오류도 많다. 가람의 저술들은 시대별로 다른 음운, 어휘, 문법 등 표기상 차이를 드러내며, 개인적 언어 습관에 의한 표현 등 비표준어적 표기나 특수용어, 사투리 등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입력하는 것은 최대한 원문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와 배치되는 작업이다. 이는 특히 원문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연구자들의 연구 정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가람 전집 발간의 두 가지 목표는 연구 자료 확보를 위한 원본의 충실과 가람의 학문과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람은 순 한글, 국주한중, 한주국중, 한문 등으로 문장을 기록하였으며,

출판 인쇄 기록 형태는 국한혼용, 한글(한자), 한자(한글) 등 다양하다. 이들을 원본 그대로 입력할 경우 많은 한자어로 된 문장은 한글세대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 입력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전집 자료 정리는 일반 독자 내지 연구자와의 소통 및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보통의 일반교양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 단어는 한글로 한다.
- (2) 의미 전달이나 표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자 표기해야 할 단어에 한해서 한글한자(예: 문학文學)로 쓰고 일반화된 불필요한 한자어는 한글로 바꾼다.
- (3) 한글 중심으로 하고 원문에 한자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을 앞세우고 한자를 ( )없이 병기하여 원문 표기 살린다. 일러두기나 각주를 이용하여 한자 병기를 밝힌다.
- (4) 인용 한문은 원문을 그대로 쓴다.

이에 보통 현대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위주로 출판해야 한다. 의미전달이나 표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자 표기해야 할 단어에 한해서 한글(한자)로 쓰고 일반화된 불필요한 한자어는 한글로 바꾸어도 읽기에 전혀 지장은 없다. 이상에서 제기된 원본 충실과 가독성 문제, 그리고 전집의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전집 발간 편집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에 가람 전집의 입력은 원본 충실을 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그 원칙을 정하였다.

- (1) 선본(善本)·선본(先本) 등 원본 확정은 전문가와 논의하여 수록한다.
- (2) 원본 내지 이본, 별개의 작은 판단하여 원전을 확정한다.
- (3) 맞춤법·띄어쓰기 및 일반 교정 교열 원칙은 현재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 문법적 오류 아닌 작가의 시대적 사회적 관련으로 나타

나는 비표준어적 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 원본 자체의 맞춤법 오류, 오타자, 미확인 글자는 바로 잡아 표기하고 필요하면 각주를 붙여 원문의 표기를 기록한다.
- (5) 인쇄, 출판 상 분명한 오류는 바로 잡아준다.
- (6) 원본의 정오표 오류는 고쳐서 입력한다.
- (7)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고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일러두기’나 각주를 통해서 하되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 (8) 특수한 글, 한문 중심의 글(한문 위주), 방점, 맞춤법, 띄어쓰기, 한글 원칙에 따른다.
- (9) 자료 제시 순서 및 자료 제시 방법을 통일하고, 출처(서지 사항, 날짜 등)를 통일하여 입력·정리한다.

### 3. 가람학 정립의 의의와 방향

전집 자료의 총량을 보면 가람 학문의 특징을 ‘잡학성’<sup>33)</sup>이라 한 표현이 역설적이지만 다방면에 방대한 양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가람의 학문은 이념만이 아니라 재야와 제도의 벽도 허무는<sup>34)</sup> 통섭의 학문이며, 가람은 우리 시대 최고의 실천적 교양인”<sup>35)</sup>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람을 일방적으로 이상화하는 표현은 아니다.

가람의 학문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일러 이를 ‘가람학’<sup>36)</sup>이라 명명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학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가람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가람학’이라는 줄기가 공유되고 분야별 연구가 그 줄기로부터 뻗어나온

33) 박성의, 「국문학의 시대별 연구사」, 『한국문학연구사』, 예그린출판사, 1978, 29쪽.

34)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지성사적 위치」,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74-76면.

35)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 함께, 2005, 155-156면.

36) 하정일·박태건, 앞의 책, 19면.

가지들로 구성될 때 가람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가람학의 범주는 서지학과 주석학을 아우르는 문헌학에 대한 이해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문헌-서지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교육학, 역사학, 구비문학-민속학, 기타 창작 등의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리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융합과 통섭의 정신이 주목되는 지금 가람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람학의 정립이 한국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람학’의 정립은 가람의 학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한국학의 재정립과 발전의 가능성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가람 전집은 이를 위한 기초 자료일 뿐이며,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람학 정립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현대 한국학 지형도 상에서의 가람학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의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 1) 문헌-서지학 분야

가람이 수집한 한국학 관련 주요 문헌들을 『가람문고』로 보관되어 있다. 『일사·가람문고 고서목록저자』, 『서목』에 수록된바와 같이 그는 국어학·국문학·민속학·국악학·역사학 분야의 주요 문헌자료들이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된 한국학 관련 고문헌들에 대해 정리·해제하는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여 가람은 직접 ‘문헌 해제’ 작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가람의 작품이 수록된 매체는 82종의 잡지와 29종의 신문으로 한국 근대 잡지사에서 그의 연구는 잡지, 신문, 저서를 중심으로 서지학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2) 국어학 분야

가람의 국어학은 학문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주시경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조선어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물들이다. 다른 하나는, 가람의 어문 창작을 통한 어문학적 실천 활동이다. 이는 50여권의 『가람일기』와 『한글』, 『조선어문

법강화], 「조선어강화」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 3) 고전문학 분야

고전문학 연구는 관련 고문헌들의 수집과 이에 관한 해제 작업과 고전문학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어문학 명저 해제」, 「한국 명저 해제」 및 각종 고문헌 해제 작업과 『국문학개론』, 『국문학전사』 등 국문학저서가 대표적이다.

### 4) 현대문학 분야

현대문학 분야의 공적은 첫째, 고전문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학문적 활동이다. 이는 「시조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계속된 시조연구를 통한 현대시조의 계승과 발전이다. 둘째는 고전문학 혹은 전통문화의 정신-사상을 새로운 현대적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전통민요·판소리 등에 나타나는 ‘서민정신’의 긍정적 강조와 재평가 활동 등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째는 그가 몸소 실천적으로 실행해 나아간 시조, 수필, 기행 등 현대문학 작품 창작 활동이다.

### 5) 구비문학·민속학 분야

이는 민요 연구와 판소리 연구에서는 동리 신재효의 판소리 관련 자료들의 발굴 정리 및 해제 작업으로 전개되었다.

### 6) 교육학 분야

평생 국어 교육자였으며 해방 후 문교부 편수관 직을 맡아, 해방 후의 우리 중등교육 국어 교과서들을 직접 맡아 편수 집필하여, 이후 우리 국어교육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주한중(國主漢從)’의 기본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확립한 중요한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다.

## 7) 역사학 분야

우리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일반교양인 및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노력 곧 한국사 인물 평전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기술하여, 이를 발표 선양하였다.

## Ⅲ. 결론

가람 이병기 전집의 단행본 전집 수록 저서는 시조집 2권, 국문학서 3권(시조론 1권, 국문학사 1권, 국문학개론 1권), 교주 및 주해서 8권, 번역 및 선집 6권, 교과서 11권, 어린이 역사서 1권 등 출판물과 서지목록 2권과, 육필 일기, 고어집 육필노트, 미발표 시조집 1권 총 35종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조사된 118종의 신문과 잡지 및 학술지에 발표된 가람 저술과 교가를 합하면 그 수량으로는 총 930여 편에 달한다. 그 장르는. 시조, 평론, 역사이야기, 수필, 기행, 작사, 주해, 번역, 해제, 서평, 좌담 토론, 일본어 저술, 기타 잡문 등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가람 이병기 전집』에 수록된다.

『가람 이병기 전집』은 2017년 10월 발간 예정이다. 가람 이병기가 문헌-서지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구비문학·민속학, 교육학·역사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남긴 현대 한국학의 업적이 종합 정리되어 있다. 총 2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단행본 저술과 학술지, 잡지, 신문에 실린 가람의 저술, 육필 노트 등이 총 망라하여 수록되는 대규모 작업이다.

전집 발간과 이에 따른 연구의 성과는 『가람 이병기 전집』의 발간과 더불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던 가람 저술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람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가람 전집의 간행을 전제로 하며 가람학 정립 방향 연구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람 전집의 발간으로 가람 연구 수립의 토대가 되는 기본 자료집을 확보

하여 이를 토대로 가람 연구 및 관심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고전문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대문학 연구자, 그리고 서지학자, 국어학자, 구비문학·민속학자, 교육학자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따라서 학제 간 연계 내지 공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점에서 파생 연구가 가능하고 국어국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적 연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전집 간행으로 가람의 문학사적 위치와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람학’으로 정립하고 풍부한 학문 세계를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활용함으로써 21세기 독자적인 한국학과 문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이해의 층위를 넓혀 일반 독자 및 연구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하고 대중화하여 지식과 상상력이 겸비된 문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활용계획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인식되어 단순히 ‘시조시인’으로 알려져 왔던 가람 이병기의 사회적 면모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가람 이병기의 인간적-학문적 면모, 곳곳한 민족적 지조는 그의 학문적-창작적 열정과 방대하고 다양한 업적들이 제대로 밝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감화와 학문적-도덕적 힐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의 고향이며 활동지인 전북 지역 사회에 많은 민족적-학문적-창작적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자긍심을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가람의 주요 연구지인 전북 익산시의 ‘가람 문학관’ 건립 사업, 전주시의 ‘한옥마을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본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매우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문화 개발과 지역 향토교육의 일환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가람 이병기 교육 내용의 질적 변화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에 합당한 좀 더 강화된 교육 콘텐츠가 개발-교육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이병기,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이병기 『국문학개설』 제1, 2권,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1950.  
이병기, 『시조와 창작론』 제1권, 발행자불명, 1957.  
이병기, 『시조의 개설과 창작』, 현대출판사, 1957.  
이병기·백 철, 『국문학전사』, 1957.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61.  
이병기, 『서목:가람이병기소장본』, 서울:발행자불명, 1963.  
이병기·최승범 편, 『가람시조선』, 정음사, 1973.  
이병기, 최승범 편 『가람시조선』, 삼중당, 1975.  
이병기, 『가람 일기』 1,2, 신구문화사. 1976.  
이병기, 『고어집』, 발행지발행자불명, 19--.  
이병기, 『문학독본』 상, 상문당, 1948.  
이병기, 『중등국어』 1,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중등국어』 2,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중등국어』 3,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중등국어』 4,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중등국어』 5,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중등국어』 6, 금룡도서, 1949.  
이병기 정인승 공저, 『표준옛글』, 신구문화사, 1955.  
이병기 정인승 백철 공편, 『표준문예독본』, 신구문화사, 1955.  
이병기 정인승 백철 공편, 『표준 고등글본』, 신구문화사, 1956.  
이병기 백철 공저, 『표준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56.  
이병기 주해, 『인현왕후전』, 박문출판사, 1946.

이병기 주해, 『한중록』, 백양당, 1947.  
 김의유당 저, 이병기 주, 『의유당일기』, 백양당, 1948.  
 유몽인 저, 이병기 교주, 『요로원야화기 외 11편』, 을유문화사, 1948.  
 신재효 선, 이병기 교주 『가루지기타령』, 국제문화관, 1949.  
 이병기 선해, 『어우야담』, 국제문화관, 1949.  
 이병기 주, 『계축일기』, 단국대학교국어문학연구회, 1956.  
 이병기 김동욱 공주, 『한등록』, 민중서관, 1961.  
 이병기교주, 『역대시조선』, 박문서관, 1940.  
 이병기, 『어린이 역사』, 정음사, 1946.  
 이병기 박종화 공역 『지나명시선』 1, 한성도서주식회사, 1944.  
 신명균 편, 이병기 교열, 『시조집(전)』, 중앙인서관, 1945.  
 이병기 편주. 『근조내간선』, 국제문화관. 1948.  
 이민천 민병도 공편,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0.  
 이병기 이태극 공편, 『현대시조선총』, 새글社刊, 1958.  
 이병기 신석정 공저, 『명시조감상』, 박영사, 1958.

## 2) 논저

김용직, 「서정의 주류화와 풍류의 미학-가람 이병기」, 『한국근대시사 하』, 학연사, 1998.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 - 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김윤식, 「『문장』지의 세계관」,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김윤희, 「『송강가사』에 대한 가람 이병기의 비평과 정전화의 실제」, 『한국학연구』 44집, 2013.  
 김제현, 「가람 시조론」, 『한국 현대시조 작가론 I』, 태학사, 2002.  
 김해성, 「이병기론」, 『한국현대시인론』, 금강출판사, 1973.  
 남정희, 「가람 이병기의 여성문학과 여성관」, 『우리문학연구』 45, 2015.

- 류준필, 「이병기 국문학연구의 체계와 특성」, 『한국문학논총』 22집, 1998.
- 박성의, 「국문학의 시대별 연구사」, 『한국문학연구사』, 예그린출판사, 1978.
- 박영학 정현욱, 「가람 이병기의 서지관 고 : 서권기와 관련하여」, 『서지학 연구』 50집, 2011.
- 박진숙, 「가람의 국학운동과 이태준」,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
- 방민호, 「해방 공간과 6.25전쟁 속의 가람 이병기」, 『서정시학』 25권 4집, 2015.
- 안병희, 「이병기」, 『주시경학보』 4집, 탑출판사, 1989. 12.
- 오하근, 「가람전집 발행을 제고함」, 『가람 이병기 탄생 120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추진위원회, 2011.
- 윤석민, 「가람 이병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연구 : 『가람일기』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40, 2014.
-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 「가람 이병기의 일기문학 연구」, 『한국언어문학』 88집, 2014.
- , 「『삼관여록』에 나타난 가람 이병기의 학문과 인생관」, 『국어문학』 59, 2015. 2.
- , 「가람 이병기의 판소리 문학 연구」, 『판소리연구』 40집, 2015.
-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 12.)
- 이민희, 「동향 : 가람 이병기 저작물에 관한 기초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 58권, 2015.
- ,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40집, 2014.
- 이지엽, 「가람시조의 혁신성과 현대적 계승」, 『우리시대 현대시조 작가론 II』, 태학사, 2007.
-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학사연구』 10집,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 이형대, 「가람의 문학사 서술 시각과 방법 -『국문학전사』의 <고전문학사>와 <국한문학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9집, 2012.

- 임미진, 「가람 이병기 서지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 12.)
- 임선목, 「가람 이병기론」, 『논문집』 5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1.
- 장문석, 「문학이란 무엇인가 - 도남 조운제와 가람 이병기의 해방 후 문학사 다시 읽기」, 『현대문학의 연구』 57집, 2015.
-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대한 일고찰: 이념성과 심미성의 괴리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 2009.
- 정영훈, 「해방기 국어교과서 편찬과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가람시조문학제 제전위원회, 2014. 9. 19.)
-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 함께, 2005.
- 최승범, 「가람 이병기론 서설」, 『전북대논문집』, 1973.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지성사적 위치」,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 하정일·박태건, 「가람 전집 발간의 의의와 방안」,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가람시조문학제 제전위원회, 2012. 9. 7.)
-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26집, 2004.
- 황재문, 「고전 재해석의 관점에서 본 가람 학문의 특성과 의의」, 『애산학보』 40집, 2014.
- 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5.

【Abstracts】

A Study on the Arrangement and Garamhak's future  
Direction for the Publication of Garam (嘉藍) Lee  
Byeong-gi's (李秉岐) Complete Works

Lee Kyeong-a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arrangement of the works for the publication of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an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study of Garam. The publication of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is to investigate, collect, arrange, and publish all his works that he wrote during in his lifetime, that is, all his separated volumes and all materials that were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will be published in October 2017.

The volumes that will be published in Garam Lee Byeong-gi's complete works are two *sijo* collections, a volume of *sijo* theory, a volume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a volume of an outline of Korean literature, eight annotated books, six translation books and the selections, 11 textbooks, two bibliography, one history book for children, the handwritten diaries (49 notebooks), and one notebook of archaic words. They are in total 35 kinds of books. Also, if about 850 writings published in over 118 newspapers, magazines, and scholarly journals and 47 school songs are added, all materials amount to about 930 pieces of writing. These vast and different works will be printed in compilation which will be made up of all 25 volumes,

The publication of complete work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the foundation of the study of Garam, allowing the whole aspect of Garam's writings to be grasped. Thereby, we will be able to discuss the world of learning, so-called the study of Garam in earnest,

The study of Garam helps to secure the opportunity to search the independent Korean studies and literature in 21<sup>st</sup> century and activate the convergent study of centering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lso, the popularization of the study of Garam makes it possible to use culture contents with unlimited knowledge and imagination

Key words : Garam Lee Byeong-gi, The complete works of Garam Lee Byeong-gi, A collection of Garam-*sijo*, Garamhak, Garammunsun, History of literature, literary critics, Bibliographer, *sijo* poet, Essayist, Koreanology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